

일부학과 모집정원 조정

공간관리 규정도 제정 ... 교무위원회의 거쳐 확정

학부 모집인원 변경과 공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학칙 규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인원 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2005학년도 3월부터 일부 학과의 모집 단위를 명칭, 인원 등을 변경하며 이는 신입생과 해당학년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시킬 계획이다.

이번 모집정원 조정은 그동안의 입시 지원, 모집 현황과 학생들의 전과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되었다.

경영학부의 경우 현재 425명의 인원 중 국제통상학과(아), 경영학과(아)에서 각각 10명을 감원한다. 또한 학과별로는 전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에서 10명씩을 감원한다. 이와 달리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미술학부, 문예창작학과는 각각 10명씩 증원된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관계

자는 “그동안의 입시 결과 등을 고려해 대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의 정원을 늘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부단위로 모집했던 생명자원과학부는 내년부터 학과별 모집체제로 변경되며 식물자원학과는 식물생명공학과로, 광고학과는 광고홍보학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야간간좌의 경영학과와 국제통상학과를 제외한 △영어 통·번역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세무회계학과 △정보통신공학과는 주간으로 전환된다.

한편 기획심사팀에서는 본교 공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 배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공간관리 규정을 제정했으며 기획인사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등으로 구성된 공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설될 공

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신·증축 공간의 용도와 배정, 사용계획 △공간수요 예측 및 공간 확충 계획 △합리적 공간 배치 및 활용 △공간 사용에 관한 조정과 용도, 구조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설립이후 특별한 연구실적을 거두지 못한 공연산업연구소를 폐지하는 대신 새롭게 공학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공학교육연구센터에서는 공과대학과 정보산업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한 지원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공학교육의 교과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연구, 실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인원은 오늘 교무위원회회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취업준비생 위한 리쿠르팅 활발

오늘부터 삼성카드 등 진행 ... 참가자 ID 부여 특전

새 학기를 맞아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기업의 리쿠르팅과 채용설명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이번 한 주간 삼성카드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에버랜드 등 총 5개 기업의 리쿠르팅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또한 코리안리제보험의 채용설명회는 내일(7일) 오후 2시부터 다환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모든 리쿠르팅 참가 대상자는 2004년 8월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해당 기업별 지원자격은 토익점수, 해당학과 채용설명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이번 리쿠르팅에서 삼성 계열 기업의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체 기업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받고 있어 리쿠르팅에 참가한 학생만이 ID를 부여받아 입사지원을 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각 기업의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삼성카드=경영지원, 리스크,

관리심사, 채권관리 △CJ Systems=네트워크운영, 정보 보호시스템 개발·운영, 디지털미디어시스템 개발 △HSBC=예금 및 수익증권 영업직 △삼성에버랜드=영업지원, 연구개발, 기술, 디자인이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 김명숙계장은 “기업별로 모집분야와 지원자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개인의 적성과 현재 상황에 맞춰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CJ Systems	HSBC	삼성에버랜드
기간	9/6~9/7	9/7~9/9	9/8	9/9	9/10
시간	14:00~17:00	10:00~18:00	10:30~17:00	9:00~11:00	10:00~11:00
장소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	본관 교무위원회	다환관세미나실	취업자료실	취업자료실
지원자격	▲경영, 경제, 회계, 국제통상, 통계, 법 전공 ▲토익 730점 이상	▲평균학점 3.0 이상 ▲토익 620점 이상 또는 토플 520점 이상	▲이공계, 경상계열, 인문계열 전공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이공계, 경상계열, 인문계열 전공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평균학점 3.0 이상 ▲경영지원직은 토익 730점 이상 그외는 620점 이상

직무적성검사 실시

오는 17일까지 접수

학생상담센터(센터장=권동희·지리교육)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지준석·토목4, 이하 졸준위)가 오늘(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직무적성검사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검사는 전교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20일 3시 △21일 3시 △21일 5시 30분에 학림관 201호에서 진행된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응시료는 총 7천원의 비용 중에 2천원만 준비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학생상담센터와 졸준위에서 지원한다.

검사 결과는 학생상담센터 사무실에서 오는 10월 4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오는 10월 5일 3시에는 학림관 201호에서 검사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패적인 캠퍼스를 기대하며 ... 시설관리팀이 구도서관리모델링 부대도

구도서관리모델링 부대도 목공사로 우수·오수 관 분리 작업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비오는 날 우수과 오수가 함께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현해 스님 법문집 출간

월정사 주지 시절 들려주던 법문 엮어내

이사장 현해스님이 법문집 '그대, 마음의 고향을 보았는가'로서 출판 이른바 '법문집'을 펴냈다.

이 책은 오대산 월정사에 주석하며 수도하던 시절,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들려주던 법문을 엮은 것이다. 마음의 고향으로 이끄는 맑은 법문은 일반인들도 쉽사리 마음의 눈을 뜰 수 있게 깨우치는

준비소리로 다가온다.

책에서 현해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독자들에게 많은 물음을 던진다.

그러나 그 물음의 답은 나침반처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벗

어나 이웃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삶이란 바로 '나'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현해스님의 법문은 거창한 화두를 들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는 식의 법문이 아니다.

국내 최고수로 대접받는 '법화경' 해석과 여러 경전을 인용하고, 때로는 자신의 인연담까지 곁들여 생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다.

현해스님은 마음의 고향을 찾아 4일 월정사불교대학 제1기 개강특강을 한다.

독서퀴즈왕대회 접수 마감

홈페이지 통해 8일 참가자 선정 공고

지난 3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와 중앙도서관 인문관리실에서 진행된 제1회 동국 독서퀴즈왕대회 접수에서 전체 100여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오는 15일 2시부터 팔정도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최종 참가자는 50명으로 제한되며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중앙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 회수를 고려해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참가자 선정 및 공고는 9월 8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상 학생에게는 △대상

=100만원 △우수상=70만원 △장려상=30만원이 각각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행사 참가 학생 전체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고 행사 중간 돌발 퀴즈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을 상품으로 수여할 계획에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철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은 “참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내 많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열리는 독서퀴즈왕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학생실 단기강좌 진행

나이트댄스 등 20일 실시

여학생실(실장=손재현·체육교육)이 오는 20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단기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13일부터 5일간 계산관 1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단기강좌는 △나이트댄스 △요가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1회 2시간씩 진행된다.

추석연휴와 중간고사 기간에는 1주일 동안 수업이 없다. 수강료는 1만원이며 100%출석하면 전액 환불한다.

자세한 문의는 계산관 여학생실(Tel. 2260-3058)로 하면 된다.

2학기 등록률 79.3%

10일 까지 등록 기간연장

2004학년도 2학기 등록 마감 결과 등록율이 서울 캠퍼스 77%, 경주 캠퍼스 81.5% 평균 79.3%로 미납자들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등록일이 연장된다.

서울 캠퍼스 등록 재학생 수는 지난해에 비해 200명 정도 감소한 것이다. 추가 등록은 본관 재무회계팀에서 가능하다.

패적인 캠퍼스를 기대하며 ...

동악게시판

- 민속연구회 탈 홍보공연**
9월 6일
오전 11시 30분~12시
장소: 상록원앞
- 사학과 106차 추계담사**
동학농민운동 관련 충남, 전북
9월 15일~9월 17일
회비: 7만원
연락: 03이승호(019-9303-7139)
- 취업**
- CJ CGV**
모집부서: 슈퍼바이저
응시자격: 기 졸업자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접수기한: 9월 12일까지
- 에이취앤케이(주)**
모집부서: 관리/컨설팅
응시자격: 성실함과 센스,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접수기한: 9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씨엔에이**
모집부서: 기획(신입)
응시자격: 법학과, 대학, 대학원 졸업
접수기간: 9월 10일까지

- 한림프리트**
모집부서: 무역부(女) / 영업부(男)
응시자격: 전자계열 전공자
접수기간: 9월 13일까지
- 한미약품(주)**
모집부서: 영업(의약부, 총병부)
응시자격: 전공불문
접수기간: 9월 13일까지
- CJ Systems**
모집부서: Network 운영, 정보보호
응시자격: 이공계, 경상계열, 인문계열
접수기간: 9월 20일까지
- FPS**
모집부서: 신입
응시자격: 전공불문
접수기간: 9월 15일까지
- NSK**
모집부서: 기술, 영업, 경리
응시자격: 모집부문별로 상이함
접수기간: 9월 10일까지
- 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모집부서: 연구원
응시자격: 생물학과, 화학과
접수기간: 9월 15일까지



아르바이트

- 가야산업**
조건: 남자
일급: 4만 5천원
근무기간: 9월 8일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모집기한: 9월 7일
문의: 02)744-7560
- 비엔비클럽**
시급: 4천원
근무기간: 9월 6일~9월 19일
근무시간: 평일-오전 7시 30분~오후 1시 30분, 오후 5시~오후 8시
주말-오전 11시~오후 8시
문의: 02)2166-2477
- 한국자료정보사**
시급: 3천원
모집기한: 9월 10일
문의: 02)739-6794
- 한승마케팅**
시급: 3천 5백원
근무기간: 최소 3주이상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모집기한: 9월 10일
문의: 02)3142-1553

이주의보고역사

학생회관에 안경점 개점

90년 8월 27일과 9월 3일, 5일 안경점 등 복지매장이 개점해 영업에 들어갔다. 안경점은 8월 1일 보안당 안경점(대표=김홍주)과 계약금 1백 50만원 월세 10만원에 계약, 27일부터 영업에 들어갔으며, 양화점은 기존 학생회관에서 구두수선을 하던 윤석천씨와 계약금 50만원 월세 5만원에, 문구점은 시내 신라상사(대표=인경량)와 계약금 1백 50만원 월세 10만원에 각각 계약했다.

한편, 이번 학생회관 휴게실 코너분양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학생복지자금으로 쓰여진다.

레슬링부 일본원정단 3차례 모두 승리

87년 9월 10일 본교 레슬링부 일본원정단(단장=백원후·체육교육과) 22명이 6일간의 일본전선경기를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본교 자매교인 대동문화대학교초청으로 가진 이번 원정경기에서 본교 레슬링부는 3차례의 친선경기를 가져 모두 승리했는데 6일 요요기체육관에서 가진 대동문화대와의 원정 첫경기에서 출전 선수 17명 전원이 승리한 것을 비롯, 8일 일본대학선발에 9승 7패, 9일 자위대에 8승 4패를 기록했다. 특히 라히수(체교1)군은 87년도 스포스계대회 금메달 리스트인 야마시타를 테크니컬 폼로 제압하기도 했다.

한편, 배기일 코치는 “이번 원정을 통해 우리 체력에 맞는 기술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9/6)	참치김치찌개 (1800) 탕수육 (2000) 오징어볶음 (2000)	순두부찌개 (1600) 순살돈가스 (1800) 콩나물비빔밥 (1800)	된장찌개 (3200) 콩나물부어해장국 (3500) 두부김치 (3500)
화 (9/7)	사골곰탕 (1800) 닭갈비 (2000) 김치볶음밥 (1800)	육개장 (1800) 오징어김치볶음밥 (1800) 스파게티&모닝빵 (2000)	된장찌개 (3200) 도가니탕 (3800) 열무비빔밥 (3500)
수 (9/8)	소고기무국 (1800) 제육볶음 (2000) 회덮밥 (1800)	닭곰탕 (1800) 간풍육 (2000) 불고기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부대찌개 (3500) 불낙볶음 (3800)
목 (9/9)	닭개장 (1800) 불고기 (2000) 산채비빔밥 (1800)	양지탕 (1800) 치킨볶음밥 (1800) 오징어떡볶이 (2000)	된장찌개 (3200) 김치불고기술밥 (3800) 황태구이 (3800)
금 (9/10)	콩나물국밥 (1800) 간짜장 (1800) 오무라이스 (2000)	쇠고기국밥 (1800) 짜꾸미불고기 (2000) 비빔반두 (1800)	된장찌개 (3200) 함박스테이크 (3800) 해물덮밥 (3800)

금주의 추천메뉴

참치회덮밥 (동국관 수요일 석식)

참치는 단백질 함량이 생선중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보다 훨씬 높다.

또한 참치에는 EPA, DHA 등의 고도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임 박종훈 기획이사처장 인터뷰

“강의전담교수제 도입, 행정조직 빠른 시일 내 개편 예정”



지난 8월 박종훈(윤리문화학) 교수가 기획이사처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신임 기획이사처장을 만나 장단기적인 학교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임 소감은. =중요 부서를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 얼마전까지 교수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을 쏟다가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기획과 인사업무에 총괄하게 되었다.

-행정업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학교가 안정적 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교육부 개혁안은 정원감축과 교원확보율제도가 골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우선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원감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급격하게 입학정원을 줄일 경우 재정확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해당학과에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법이 적절할 듯하다. 또한 교육부 방침을 떠나서 우리학교는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를 위해 학과별 교수임용정원을 늘리고 강의전담교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능력있는 교수를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규교수초빙일정을 앞당길 것이다.

-행정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난 해부터 추진해왔으나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어 지체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관련 부서를 보강·격상시키고, 국제교육원을 신설해 국제교류와 언어교육을 통합하는 방안과 양교육화차원에서 교양교육운영실을 확대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입학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속사건법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데.

=중대피동병원에 기속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일산 제3캠퍼스 부지에 민자유치 기속사를 세우는 방안을 구상하는 단계다.

-교수회에서 군호봉인정 등 임금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교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전 기획이사처장 때부터 꾸준히 검토해온 사안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건을 마련해 교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신규교수 채용일정 늦어져

일부학과 계획서 제출안해 행정차질

본교 신규교수 채용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신규교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지난 달 말 정도에 확정짓기로 했던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오는 20일 까지 작입이 늦춰질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학기부터 신규 교수 모집 공고를 한 달 정도 빠르게 내보내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했던 취지는 무산됐다.

이렇게 신규교수 채용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몇몇 학과가 기한 날짜까지 신규 교수 채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부 학과는 신규교수 채용 계획서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학과장의 부재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매년 동일한 기간에 이뤄지는 작업이니 만큼 미리 준비하는 학과의 자세가 요구된다.

추석귀향버스 13일부터 접수

본교 구성원 모두 이용가능 ... 24일 출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덕수·역교4, 이하 학복위)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앙도서관 앞에서 귀향버스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귀향버스는 오는 24일 오전11시에 출발할 예정이며 가격은 거리에 따라 3천원에서 1만원 정도이다.

버스는 본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이 가능하면 구성원의 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복위의 한 관계자는 “출발하는 당일에도 접수를 받으나 여행자보험처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귀향버스 접수할 때 생협 조합원 신청도 함께 받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금액 차등에 관

련된 사안은 다음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삿포로가꾸인대 본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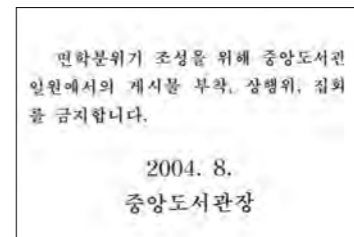
삿포로가꾸인대학 총장과 13명의 학생대표가 오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본교를 방문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었던 본교 학생들의 삿포로 가꾸인 대학 탐방과 연계되어 이뤄지는 것으로서 삿포로 가꾸인 대학 일행은 수업을 참관하고 한국전통문화를 익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대부분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할 예정이다.

동약로

학업(up)분위기 조성(?)



“학생, 도서관 앞에서 이러면 면학분위기가 저해되잖아”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지난 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회측과 도서관 관계자 사이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학생회가 ‘국가 보안법 폐지’ 관련 선전물을 게시하려 했으나 도서관측이 학업분위기 저해를 이유로 반대해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선전물을 게시하지 못했으며 서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도서관측은 지난달부터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서관 앞에서 선전물 게시와 상행위 등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학내 집회는 물론이고 토의, 운전면허 접수 등 도서관 앞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활동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이로써 도서관 앞은 한결 차분해졌지만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소란스러운 활동으로 학업분위기를 저해시키는 단위로 있지만 학업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구성원들의 복지활동을 펼칠 단위로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가위 귀향버스 사업은 1천2백여명의 학내구성원이 이용한다. 이는 개인 또는 특정집단이 아닌 본교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철버스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물론 일부 단위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전부 들어줘야하는 도서관의 입장도 난감하겠지만 이런 복지사업의 활동이 도서관의 분위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도서관의 학업분위기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학내구성원들의 복지환경 역시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학내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도서관 ‘밖’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복지사업과 소란스러운 상업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해야하지 않을까.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얼굴있는 출석부 6일부터 나온다

담당교수·학생 친밀감 높이고자 도입

이번 학기부터 출석부에 학생들의 증명사진이 함께 기재된다. 이는 담당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학생들의 출석률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출석부는 오늘(6일)부터 담당 교수들에게

배부된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일부 신입생이 아직까지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에 차질을 빚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기를 당부했다.

한국어학당 10일 수료식

100여명 수료 예정... 가을학기 10월 4일부터

한국어학당 여름학기 수료식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학술문화관 K동 탁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한국어학당은 지난 7월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0주 동안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진행됐으며, 총 123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집과 서울랜드 방문 등 외부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료식은 △원장축사 △수료증 수여 △작문 발표회 △학생들의 장기자랑 △다과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약 100명의 학생이 수료할 예정이다. 수료생의 대부분은 다음학기 언어연구교육원에서 계속 수강하며 수료를 하지 못한 학생은 앞으로 한국어강좌 수강이 불가능하다.

한편 가을학기 강좌는 35명이 신규 등록했으며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미국 서래대 어학연수생 모집 14일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접수

미국 서래대학(University of the West)에 파견할 어학연수생 지원 접수가 오는 14일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이뤄진다.

선발인원은 총 10명으로 서래대학으로부터 학비·등록금·기속사비를 포함한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항공료·식비·교재비, 비자·보험 및 관련 제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다.

파견기간은 2005년 1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7개월간이며, 파견기간 중엔 필히 일반후학(1학기) 하야야 하며, 우리대학 장학금 혜택이 없고, 어학연수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생, 대학원생 중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 또는 재학생으로

△평점평균 3.0이상 △2005학년도 1학기 휴학가능자이다.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전형방식은 학부과정 성적 50%, 면접 50%(필기시험 포함)로 이뤄지며 16일 오후 2시 국제교류실에서 실시되며 선정자는 20일 이후 개별통보된다.

이번 서래대학과의 교류는 본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대안성운스님과 본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서래대는 대안 불광산사가 미국 LA에 설립한 대학으로 지난 6월 이사장 현해스님이 현지를 방문하면서 상호 교환학생 파견 등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작은 음악회 ... 클래식 기타 동아리 현여울(회장=김정민·사회2)이 지난 4일 중강당에서 제23회 현여울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갈릴, 리베라레고 및 브람스, 모차르트의 음악들이 선보였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기간 : 2004. 3. 1 ~ 2004. 8. 31

발전기금

- △490만9,400원 범문사
△160만원 미디어시절
△110만원 박봉준(동문)
△100만원 황인범(불교대학원)
△65만원 인종환(신도)
△7만원 이천중(총무팀장)
△6만원 정해련
△5만원 한광태(동문)

- △101만원 암은진
△100만원 강기원(신도), 권진숙(불교대학원), 김인화(신도), 민부영(신도), 박병관(불교대학원), 박준호(신도), 백한이(문화예술대학원), 법안정사보리회, 병형하, 손정자(신도), 양성문(신도), 오종현(산림자원학과 교수), 오재철(동문), 이진택(신도), 이명숙(경주병원), 이상섭(신도), 이승철(지리교육과 교수), 이양우(문화예술대학원), 이용환(산업시스템학과 교수), 임영국(신도), 장석연(신도), 장수자(신도), 장애순(불교학과 교수), 정봉진(고교미술학과 교수), 정은길(행정학과 교수), 황순우(신도)
△60만원 이태자
△50만원 김효정(교직원), 문화예술대학원17기총학생회, 최윤희도살풀이전수자일동, 한영숙(문화예술대학원)
△30만원 양영순(신도)
△25만원 김필현(신도)
△20만8천800원 최윤근(동문)
△20만원 성문사, 권귀선(신도)
△15만원 익명
△10만원 권승영(불교대학원), 권주영(교직원), 김용선(동문), 김호석, 김화실(동문), 김홍태(불교대학원), 박병수(불교대학원), 신준식(불교대학원), 심성태(신도), 우인보(동문), 유승복(불교대학원), 유이상(동문), 윤해영(동문), 이상재(동문), 이천중(총무팀장), 익명, 장경순, 한진자(문화예술대학원), 한영숙(동문), 황인원(동문)

- △5만원 김고불행(신도), 김금례, 김덕진(동문), 김은경(동문), 김종환(교육대학원), 남상문(동문), 배해숙(신도), 변애숙(동문), 서행민(동문), 오수산(동문), 오인순(동문), 유세희(교육대학원), 윤현애(동문), 이다우(신도), 이연숙(동문), 이재현(동문), 익명, 정정란(동문), 조은일(교육대학원), 한정욱(동문)
△3만8천원 유영근
△2만원 권문택(신도), 김영길, 김인수(신도), 하옥상(동문), 홍승권(동문)
△1만5천500원 동대신문학생기자
△1만3천800원 동국포스트학생기자
△1만원 김배옥(신도), 박혜영(신도), 이재연(동문), 익명, 임유미(동문)
△5천원 익명

불교병원기금

- △2천만원 한국RF
△1천145만원 성문대사(대안 불광산사 개산 중장)
△1천만원 이태화(불교대학원)
△500만원 경화상사(대표:임행준)
△200만원 임태평(철학과 교수), 황중국(불교대학원)
△150만원 이동철(불교대학원)
△114만원 정정훈(신도)
△100만원 박수산(불교대학원), 김건일(신도), 김영돈(불교대학원), 도기스님, 박승운

- (의과대학 교수), 백남채(불교대학원), 원공스님, 이성룡(신도), 이진택(신도), 장철진(불교대학원), 정영순(신도), 조문영(신도), 지용근(불교대학원), 침안스님(불교대학원)
△72만5천원 조계사범우회일동
△70만원 김영환(신도)
△60만원 배해경(신도), 장명순(신도), 장서연(신도)
△50만원 이재우(신도), 임금순(신도), 전순남, 진복연(신도)
△30만원 윤용대(신도), 이상수(신도), 이홍연(신도), 홍문자(신도)
△18만원 문성환(신도)
△12만원 김선호(신도), 정기동(신도), 홍순아(신도)
△10만2천200원 ARS입금액
△10만원 김경택(신도), 김계진, 김길호(신도), 민부영(신도), 안대순(신도), 우덕은(스님), 이경자(신도), 이순우(신도), 이준, 이철은(동문)
△7만2천원 권혁재(동문)
△7만원 장성수
△6만원 문정순(신도), 조동철(신도)
△6만원 백승태, 이옥례(신도), 이은주(신도), 이주리(신도), 장순례(신도)
△4만원 김영길(동문), 김정심
△3만5천원 임선화(신도)
△9만원 조남욱
△1만5천원 진진욱(신도)

특정목적기금

- △8천17만467원 석림동문회
△5천만원 한의과대학의대교수회
△4천925만16원 조계종교육원
△3천만원 김성숙(사회과학대학원)
△3천만원 방승환(동문)
△1천1백만원 이봉욱(가정의학과 교수)
△1천만원 김성숙(사회과학대학원), 박승민(동문)
△700만원 경주정각원
△587만5천원 광창근(동문), 김민성(동문), 김석하(동문), 김세운(동문), 최영성(동문), 문국진(동문), 박령준(동문), 배철환(동문), 윤상구(동문), 이영자(동문), 이용근(동문), 이철웅(동문), 이태재(동문), 임성철(동문), 장희욱(동문), 정용래(동문)
△300만원 김성룡(동문), 김영효(동문), 어청수(행정대학원)
△200만원 전영화(동문)
△150만원 이희우(행정대학원장)
△100만원 김형섭(동문), 박기륜(동문), 신동건(동문), 신용선(동문), 양두환(동문), 이경범(동문), 이승기(동문), 이연석(동문), 이윤근(교직원), 최성철(동문)
△50만원 최영희(동문)
△30만원 권두삼(동문)

장학기금

- △1억원 김대인(동문)
△6천만원 토목환경공학과동창회
△1천500만원 경주직할동창회
△1천14만원 경영학과졸업동문
△1천만원 박영석(동문)
△840만원 김상수(대학원), 한신종합건강진단센터
△600만원 한국교통총합개발
△500만원 김성권(철학과 교수), 황중국(불교대학원)
△400만원 시운출산
△300만원 김상수(대학원), 한신종합건강진단센터
△200만원 김인겸(행정대학원), 박병욱(동문), 박인규(동문), 백운, 손창수(동문), 정

- 인재(동문), 한창물산
△150만원 포플
△100만원 강도권, 대영축산설계공사, 박영자, 션푸드, 코리아시스템
△60만원 강서, 느티나무집(신도), 담소원, 신유화

단위기금

- △5천만원 한의과대학의대교수회
△4천4백60만원 행정대학원
△1천만원 구재태(동문)
△312만5천원 광창근(동문), 김민성(동문), 김석하(동문), 김세운(동문), 최영성(동문), 문국진(동문), 박령준(동문), 배철환(동문), 윤상구(동문), 이영자(동문), 이용근(동문), 이철웅(동문), 이태재(동문), 임성철(동문), 장희욱(동문), 정용래(동문)
△300만원 김성룡(동문), 김영효(동문), 어청수(행정대학원)
△200만원 전영화(동문)
△150만원 이희우(행정대학원장)
△100만원 김형섭(동문), 박기륜(동문), 신동건(동문), 신용선(동문), 양두환(동문), 이경범(동문), 이승기(동문), 이연석(동문), 이윤근(교직원), 최성철(동문)
△50만원 최영희(동문)
△30만원 권두삼(동문)

동국사랑저금통기금

- △15만5천원 조창원(동문)
△8만1천780원 박근서(의료원 기획조정실)
△4만6천530원 정성호(학생복지실장)
△3만6천550원 동대신문학생기자
△3만4천580원 허광도(교직원)
△2만6천660원 동국포스트학생기자
△1만5천600원 김동호(교직원)

기금접수 ARS 안내

060-700-0119

- 금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 2260-3791 ~ 5

대학원 위기

대학원 입학정원 미달의 원인과 대책

한국사 전공도 “미국유학 가고싶다”

무분별한 정원확대로 교육수준 저하 ... 사회적 차별도 한몫

고급인력 훈련과정 투자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

어느 대학이라 할 것도 없다. 서울대조차 대학원 정원 미달 사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서열체제가 엄존하는 현실이고 보면, 다른 대학에 개설된 대학원의 사정을 말해 무엇하랴. 대학원 교육의 ‘총체적 위기’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 대학원의 사정이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녕 해결책은 없는가?

대학원이 연구하고 학문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진부할 정도다. 독자적인 재생산 구조를 갖추지 않는 한 학문과 기술의 대외종속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태에서 유학을 통해 고급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영혼과 정신의 무국적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

현상적으로 보면, 대학원 입학정원 미달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정원 확대라 할 수 있다. 대책 없이 대학원 정원 늘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정원을 늘리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전임교수 확보율을 조작해왔다. 교육부는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입학정원을 늘려주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우리 대학원의 자화상이다. 대학에 돈이 되고 교수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식이었던 셈이다. 자연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깊이 반성하고 시정할 일이다.

문제의 원인은 대학 내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고학력 취업난으로 집약되는 노동시장의 협착화

가 선택의 폭을 좁혔다. 미래가 불확실한 대학원에 진학하기보다는 당장 취업하거나 취업이 ‘보장되는’ 각종 고시공부가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게다가 기업의 근시안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일례로 석사학위 취득자의 대학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원 탐색의 과정조차 기피의 대상으로 만들고 말았다.

제레미 리프킨의 말대로 고용 축소는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자기운동성을 갖고 있다. 자동화나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란 뜻이다. 이런 힘이 작용하면서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만 것이다. 그 고리 한 가운데 대학원 미달 사태가 놓여있는 것이다. 단기적인 이윤만

을 앞세우지 말고 고급인력의 훈련 과정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다.

그러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학원 교육과 연계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권력의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벌이 활개 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내 박사보다는 외국 박사가 우대받는 현실이다. 한국사 전공자까지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나설 정도니 다른 분야는 오죽하겠는가. 의도적으로 독자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기반을 만들지 않으려는 강력한 힘이 실재한다. 지배 권력 내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다. 이런 세력 판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대학원 미달 사태로 상징되는 대학원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용 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최근 몇 년 사이 대학원 입학 지원자 수가 계속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본교뿐만이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원이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우리학교 대학원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해법을 찾자

우리학교 대학원 입학인원 감소원인 분석

석사과정 45% 가량 정원 미달

상향지원 경향·전임교수 부재 등 열악한 교육환경

본교 2004학년도 일반 대학원 입학 정원은 박사과정 231명, 석사과정 615명이다. 그러나 현 대학원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박사과정은 정원을 채웠지만 석사과정은 총 339명으로, 전체 정원 중 약 45%에 가까운 인원이 미달됐다. 미달률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이 58%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 53%, 인문사회계열 47%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의 질 하향화

본교 일반대학원 문제는 단순히 입학 인원 감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대학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원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학부생들의 대학원 상향지원 경향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본교 또한 현 대학원생들 중에서는 타 대학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에는 불교학이나 영화영상학과 같이 우리학교의 전통 있는 학문을 전공하기 위해 입학한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대학 학생들이다. 더구나 대학원 지원 감소로 현 석사 과정 입학시험은 형식적인 것일 뿐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반 대학원의 전체적인 수준 하향화를 불러일으켰다.

대학원 전임교수가 미술사학과 3명을 제외하고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대학원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부수업과 대학원 수업 나아가 보직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교수들은 자연히 활발한 연구를 통한 역량 증가가 힘들게 되고 이러한 교수들의 능력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원생들의 몫이다. 따라서 대학원 강사들의 전임교수화를 통해 대학원

전임교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2007년까지 잠정적인 박사 실업자의 수는 7만명이라고 한다. 대학원 강사들의 전임교수화는 고급인력의 채용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대학원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정원감축 등 장기적 대안 필요

일반 대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계적인 정원감축이 실시돼야 한다. 이러한 정원감축의 방법으로는 모든 계열을 똑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법과 선택을 통해 일부 학과의 정원을 줄이거나 다른 학과의와 통폐합을 추진해 보는 방법이 있다. 후자는 몇몇 학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와 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반대학원의 특성화는 조심스럽게 제안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학문 도태 초래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본교는 대학원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연계전공 △산학협동 △학부·대학원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일반 대학원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학원 지원 인원 감소 해결에 초점을 맞춰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과감한 정원 축소와 투자를 통해 대학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대학원도 문제 심각

대학원 지원 감소는 특수 대학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수 대학원은 사회인들을 대

상으로 하는 재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에 비해 경기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다. 이는 IMF를 겪으면서 꾸준히 감소한 특수대학원 지원 인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일례로 언론정보대학원은 2002년도부터 입학 지원이 감소해 올해는 20%의 미달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이러한 특수대학원의 미달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과 간의 통폐합 △인원 자율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하지만 특수대학원 또한 인원 감소 문제 해결만을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특수대학원의 설립 목적인 사회인들의 재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특수대학원은 적당히 하는 학생들에게 적당히 학위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정보대학원 박만규 교학과장은 “특수대학원은 교육 질 향상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선의 어려움을 말했다.

특수대학원은 무엇보다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사회인을 재교육하는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 본교의 미술심리치료학과 같이 사회인들을 재교육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커리큘럼은 좋은 사례이다.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다른 교육과정 자체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입학 인원의 감소는 산재해 있는 대학원 관련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미시적 사안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운다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본교 대학원 연구공간 부족

연구등록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지난학기 본교 대학원생의 인원은 △인문·사회계열=6백 90여명 △이·공계열=6백 20여명이다.

이들은 연구기능 중심의 최상층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원에서 고도의 전문인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교 최상층의 교육기관은 어떠한 환경으로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을까.

▲연구공간부족 = 현재 연구공간은 학술문화관 S동에 총 158명을 수용할 수 있는 6개의 연구실뿐이다. 특히 많은 서적을 이용해야하는 이들에게엔 지정연구좌석도 절실하다.

타 대학과 학생수대 지정연구실을 비교해보면 △동국대 3.8:1 △서강대 2.7:1 △중앙대 3.3: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정민(국어국문학 석사과정)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수료생과 연구등록생의 비율을 합치면 16:1이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구실을 사용해보지 못하고 졸업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에 나와 논문 등을 준비하는 수료생과 연구등록생도 지정연구실이 절실하다. 이에 반해 고려대의 경우는 수료생과 연구등록생을 포함해 5천여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연구실은 710여석이 있어 6:1의 이용비율을 보였다.

또한 중앙도서관에는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부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 총학생회 김선철(북한학 석사과정)정책과장은 “대학원 건물과 거리가

멀어 대학원생들의 사용은 저조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미나실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학생들의 반 이상 신청하러 왔다가 신청서 대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 교학과의 김해덕 직원은 “중대 필동병원과 구도서관에 연구실과 강의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강대는 8백여명의 재학생 중에서 292석의 연구실, 중앙대는 9백여명의 재학생 중 282석의 연구실, 고려대는 재학생 외에 수료생과 연구등록생을 포함한 5천명의 학생에게 710석의 연구실이 제공된다.

▲연구등록제 = 타 대학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본교는 인문계열 등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학기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높은 연구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혜택은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10%, 연세대는 14학기 동안 등록금의 1/8, 서강대는 4년동안 동결된 73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반대학원 교학과의 한 관계자는 “다음해부터 납부하기 또는 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주상 기자
hjsoc228@dongguk.edu

<인문·사회계열>

학교	연구등록비
고려대	등록금의 10%
동국대	인문계열 등록금의 20%
서울대	10만원
서강대	73만원(4년째 동결)
연세대	등록금의 1/8

학교	학생수와 연구실 비율
동국대	3.8 : 1
서강대	2.7 : 1
중앙대	3.3 : 1
동국대	16 : 1 (수료생 및 연구등록생 포함)
고려대	6 : 1 (수료생 및 연구등록생 포함)

“철학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

칸트 서거 200주년 ... 철학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 차지

지난 2월 12일로 독일의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세상을 떠난 지 200주년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칸트 사망 20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다. 칸트 연구는 철학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어떤 학문건 그 생명력이 긴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보편성이다. 칸트 철학이 사후 200년을 넘어서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이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철학의 보편성 및 객관성을 대변해준다. 칸트 철학의 보편성 및 객관성은 무엇인가?

비판철학 전개

철학의 연구 대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속한다. 인간, 자연 그리고 초월적 대상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에 대해 연구하는 태도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서양철학으로 좁혀 볼 때, 근대 이전까지는 철학의 대상들을 그 자체의 존재(실체)로 전제하고 철학의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인간의 본질, 자연을 이루는 물질의 본질, 그리고 초월적 신의 본질을 무엇인가를 논함으로써 형이상학을 정초하고자했다.

그런데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철학이 형성되면서 철학의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인다. 인간 및 물질의 본질에 대한 이론들간에 극심한 상위점을 보이는 이론들도 생겨나며, 과연 우리 인간이 인간 자체, 물질 자체를 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철학상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근대의 경험론적 철학의 정점에 있는 흄(David Hume, 1711-1776)에서 이러한 태도는 철학의 근본적 입장으로 된다.

칸트는 자신의 비판철학을 정초하기 이전에는 라이프니츠의 이성론적 철학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뉴턴 물리학의 근본 이론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성론적 철학과 물리학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

은 아니다. 이성론적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질 물질의 본질 및 신의 본질에 대한 정의에 기초해서 철학 체계를 세우는 데 비해,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질적 존재의 본질을 밝혀냄으로써 우주 전체의 구조를 알아내고자 했다. 이 양자의 학문에는 이미 각자의 형이상학적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이 세계의 존재를 그 자체로 그리고 전체로서 알아낼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흄의 입장을 접하고 나서 칸트는 자신의 종래의 학문 태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흄의 이론을 수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흄은 자연 자체에 관한 필연적인 법칙으로서의 인과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칸트는 이에 반대한다. 단지, 자연의 필연적 인과율에 대한 흄의 의의제기를 어떤 이론으로써 반박하여 필연적인 인과법칙을 새로운 기반 위에 세우느냐 하는 것이 칸트의 새로운 과제이고, 그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칸트 비판철학의 토대가 된 ‘순수이성비판’이다.

‘순수이성비판’에는 근대적인 사고 및 현대적인 사고의 근간을 이루는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칸트는 여전히 뉴턴의 이론을 신봉하면서도 공간과 시간은 존재 자체(절대공간, 절대시간)가 아니라 관념적인 존재라고 주장함으로써 뉴턴과 완전히 견해를 달리 하기도 하고,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율을 주장하되, 이 인과율은 자연의 존재 자체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필연적인 사고 법칙이라고 말한다. 칸트에서는 이제 자연 및 세계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의 선험적 형식인 공간, 시간, 범주(근본적 사고 형식)의 틀에 의해 본 세계이다. 우리들은 이 틀 이외에 다른 틀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틀은 인간에게 필연적이고 선험적이며, 우리들이 이 틀에 의해 인식하는 세계에 관한 지식도 선험적 필연적 객관적 보편적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연 자체에 접근할 길은 없다. 하물며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라. 여기에서 칸트는 근대적 자연관(필연적 인과법칙 인정)과 더불어 현대적 자연관(사물자체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주관적 형식에 나타난 현상만을 인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실천이성 강조



칸트는 이 세상의 존재에 관한 철학으로서의 이론철학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관한 철학으로서의 실천철학에서도 그 이후의 철학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뿌리를 이루는 이론을 정초한다. 우리들은 근대 이후의 윤리학 이론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功利주의(결과주의)와 의무주의(동기주의)를 말한다. 칸트는 이 둘 중 후자의 이론을 기초지은 사람으로서 현대 윤리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윤리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 형태 및 국가간의 바람직한 형태 등에 대해서도 이론을 정립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은 자연적 본성만으로 생각해 볼 때는 철저히 이기적인 동물이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기호가 우선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공동생활에서 도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비추어 가능하면 서로간의 이익에 충돌이 적게 일어나도록 조정하는 것이 사회 및 국가의 역할이다.

칸트는 자연의 본성에 토대를 둔 행위 법칙은 엄밀한 의미에서 윤리가 아니라고 한다. 인간의 진정한 행위 법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 자연적 본성 외의 다른 본성에 근거해야 하는데 그 다른 본성이란 바로 이성을 뜻한다. 인간은 자연적 본성뿐만 아니라 이성적 본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이 자연의 다른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소이를 칸트는 이성적 본성에서 구하며, 이성적 본성에 비추어 행위하고자 하는 지침이 바로 윤리라고 한다.

바람직한 행위 규칙 및 바람직한 사회 형태를 지향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와 살다 가는 데에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대체로 받아들일 것이다. 심정이 저절로 기울어지는 대로 사는 것(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사람들간에서 행해야 할 옳은 규칙,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며 행해야 할 옳은 규칙을 시시각각 자기자신에게 명령(이성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함으로써만 인간의 참다운 삶, 참다운 인간 사회가 가능하다는 칸트의 주장은 우리들이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며 정진하는 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현대미학과 예술철학에 영향

앞에서는 칸트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에 대해 소개했다. 세 번째로 칸트의 미학에 대해 소개한다. 현대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요즈음 유행이 되다시피한 문화이론 및 문화의 흐름과의 관계에서 미학 및 예술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 미학 및 예술철학의 토대에서 칸트의 이론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칸트는 제3비판서인 ‘판단력비판’에서 제1비판서라고 불리는 ‘순수이성비판’과 제2비판서라고 불리는 ‘실천이성비판’의 과제를 종합하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 새로운 과제란 자연의 이론적 법칙과 인간의 실천적 법칙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 모순을 일으키는 두 개의 법칙을 하나로 통일하는 과제를 말한다. 칸트는 이원적인 두 세계를 하나의 원리로 통일하는 원리로서, 자연의 궁극원리로서의 합목적성을 말하는데, 아름다움 및 숭고 감정의 체험은 우리 인간이 합목적성의 원리를 체험하는 예라고 칸트는 보고 있다.

칸트에 따를 때 우리가 어떤 대상에서 아름다움이나 숭고의 감정을 느끼는 일은 그 대상의 형식이 궁극목적에 맞아떨어질 때(합목적성)이다.

칸트에 따를 때 우리들은 어떤 대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의 무한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이성 및 절대적인 이성의 합일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 및 숭고의 체험인 것이다. 이 체험은 바로 상상력과 이성의 통일 체험이며, 자연과 자유의 통일 체험이다.

현대의 많은 미학 이론가, 예술 이론가 내지 문화이론가들은 칸트의 이러한 철학을 원용하여, 마치 자신들의 새로운 이론인 듯이 ‘감성적 이성’ ‘심미적 이성’ ‘공통적 감성’ 운운하며 감성과 이성의 통일이 미래의 삶의 지향점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최인숙
문과대 철학과 교수

학술단신

원자력과 여성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오는 7일 열려

‘2004 원자력과 여성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7일 서울 외교센터 리더스클럽에서 열린다. 이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난 2000년 10월 원자력 분야 여성 전문가들이 원자력 연구와 여성원자력 전문가 육성,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주최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국제사회의 원자력경험 △2부=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과 여성으로 진행되며 김희정 국회의원이 ‘원자력과 여성’을 주제로, 한국핵융합협회 회장인 신재인 박사가 ‘원자력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성과학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중금속 오염된 토양

정화시킬 수 있는 고려 썩 개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김정규 교수팀이 썩을 이용해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김 교수팀은 품종 개량으로 중금속 내성이 강화된 ‘고려 썩’을 이용해서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카드뮴의 중금속을 땅에 심어둔 썩이 흡수해 다른 생물에 독성이 옮겨 않도록 한다. 썩에 의해 1차적으로 중금속이 제거되면 남아있는 중금속은 식물 자체적 정화 기능으로 생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또한 오염된 흙 알갱이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아 오염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남북 학술토론회 금강산서 개최

고구려사 문제 주제로 11일, 12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구려사 문제를 주제로 한 남북간 첫 공동 학술토론회와 자료전시회가 11일부터 이틀간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남측에서 강만길(상지대 총장) 남측 협의회 위원장과 최광식 고려대 박물관장 등 160명이, 북측에서 허종호(역사학회) 북측 위원장과 이종혁 아태평화회 부위원장 등 70명이 참석한다.

고수동정



△김영민(영문학과)=8월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대학에서 개최한 국제아일랜드문학학회(IASIL)에서 논문 발표 및 아일랜드의 국제예이츠학회에서 특별강연



△김홍호(산림자원학과)=사막학 방지 과제 수행을 위해 9월 6일에서 11일까지 중국 고비사막 방문

보리소

아름다운 삶, 웰빙

요즘 문화적 유행어로 자리 잡은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말을 처음 대한 기억은 1970년대에 출간된 에리히 프롬의 '정신분석과 선불교'의 첫 구절에서였다. 이 책에서 웰빙이란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평안한 상태(well-being)'로 자기애를 극복한 차원에서 마음이 열려 공이 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프롬은 인간의 본성은 평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고 보고, 선과 정신분석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이상으로 웰빙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듯 하다.

그러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웰빙 문화는 내면적 요소보다는 상업적이고 물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웰빙적 삶의 한 중요한 요소인 명상조차도 개인적인 수행의 차원을 넘어서 대중적 상품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서구에서는 자기의 선천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케 도와주는 자기계발과 명상산업이 기업화되고 있으며, 이른바 능력교라는 신종종교도 급성장하고 있다. 웰빙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 동양의 정신문화에 바탕한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건강식과 스포츠, 한방요법, 기공, 음악, 전통무예, 그리고 명상수련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통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화를 다스리며, 마음의 평화, 자연과 함께하는 삶, 몸의 건강과 조화, 그리고 자기를 계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삶과 통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며, 불교를 비롯한 동양적 가치관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명상과 수행의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육신중심의 불로장생적 삶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의 길과는 거리가 있을 듯 쉽게 알 수 있다. 참된 웰빙은 진아의 각성을 통한 불생불멸한 생명의 발견과 그 속에서의 창조해 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야 하지 않을까?

김용표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소나기

독서의 계절 가을, 나는 이 책을 추천한다



- △에리히프롬의 '사랑의 기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조정래의 '아리랑' 1권부터 12권까지 정말 대작이다.
△Vrasawa Naoki의 '마스터 키튼'을 추천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
△신경숙의 '외딴방'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사이'
△피천득의 '인연' '한잔의 차'와 같은 수필이다
△올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
△베르베르의 '개미'
△조지오웰의 '1984'와 더불어 영화 '여인의 음모'
△올베르트 에코의 '푸코의

- 진자'를 강력 추천합니다.
△다빈치 코드 재미있어요
△양홍석의 '미국의 팽창'과 코엘료의 '11분'
△베르베르 베르나르의 '뇌'를 강력 추천합니다.
△E.H.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보고 울 뻔했어요.
△이미나의 '그 남자 그 여자'
△태백산맥, 정말 대작이라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문열의 '삼국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전태일 평전'을 읽고 70년대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알았다.

'신화의 땅' 아테네에서 열린 제28회 올림픽이 4년 뒤 고도 베이징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 막을 내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와 화합을 합창한 남북한 선수단은 202개국 1만여 선수와 직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흔히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거기에는 치열한 승부가 있고, 승자에게는 국가가 계양되고 국가(國歌)가 연주되는 등 나라의 명예와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민감한 행사이다.

단 한 개의 메달도 못 딴 국가가 무려 127개국인데 비해 우리가 종합 9위를 차지하고 애국가 아테네 언덕에 9번이나 울려 퍼졌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뽕뽕한 쾌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낸다.

이번 올림픽은 많은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 받고 있다.

각종 약물 스캔들과 잇따라 불거진 판정 시비, 채점 오류, 경기장 난입 등 올림픽 패밀리로 하여금 "오 노"(Oh No)를 연발할 만큼 '더티 올림픽'이 되고 말았다.

우리 기계체조 '양태영 오심사건', 남자 마라톤의 브라질 '리마피습사건' 등 희대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다.



논단

유광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4 아테네올림픽'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나는 대만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교훈을 준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대만의 사상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태권도 선수 천시신(陳詩欣)의 울먹이며 경례하는 장면이었다. 꿈에도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시상식에서는 '나라 없는 설움'에 목을 메었다. 대만국가 대신 대만을 리픽위원회가 계양되고, 국가 대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국기가'(Song of the

national flag)가 연주되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던 천시신은 별개계 총혈된 눈으로 기자회견장에서 말문을 잊지 못했다.

외국기자단이 혹시 중국선수로 오인할까봐 "나는 대만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회견장에 비장감마저 감돌았다고 한다.

대만은 국제대회에서 국기와 국가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명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대신 'Chinese Taipei'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메달을 따고도 나라의 국기와 국가를 자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순수한 올림

픽 정신에 부합하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베를린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

68년 전 베를린올림픽에서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우승한 손기정 선생의 '나라 없는 설움'은 이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거기에는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었고, 아예 나라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베를린올림픽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비록 스탠드 한쪽 구석이지만 안익태의 지휘 아래 몇 명의 재독교포들이 오늘의 애국가를 응원가로 불렀다는 사실이다. 애국가가 이토록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도 올림픽에서 태어난 것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라위상 살리는 것이 선결과제

이제 베이징올림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메달을 몇 개 더 따서 국위를 선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을 통해 올림피아드 정신을 향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결코 앞보이지 않도록 나라의 힘과 위상을 키우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 같다. 신화통신은 중국을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변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자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많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권하고 싶은 2가지 철학은 '꿀리지 않게 살자'와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이다.

대학에 들어와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던 나는 왜 사는지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이르는 많은 질문을 했다.

왜 항상 불행한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나에게 친구의 말은 돈오의 순간이었다. "어디 가서든지 꿀리지 않게 살면 돼." 꿀린다는 것은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서 자신감은 모든 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잘 해낼 때 주위의 칭찬과 자기 만족감으로 생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한 일을 남이 인정해줄 때 행복하다.

위의 원리가 삶의 일반적 철학이라면 '떡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방법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여전히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도 자신을 준비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꿀리지 말자'와 비슷하다. 제사 지낼 생각을 못하고 있던 사람은 떡을 보

면 먹기만 하고 제사는 지내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행운의 여신이 내 앞을 지나가도 뒤늦게 잡으려면 머리카락 없는 뒤통수를 잡을 수 없음과 같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에게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가 필연적이듯이 우리도 항상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떡이 오면 제사지낸 다음에 먹음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나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아도 좋다. 그것은 세상이 다양한 색으로 그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난하지는 말아라. 나도 세상의 다양한 색중에 하나일 뿐임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영은(사범대 교육3)

'역사의 고통' 외면한 위험한 발상

지난 2일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일제시대 정신대가 조선총독부의 강제 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상업적 공작이었다는 이영훈 교수의 발언으로 우리사회엔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해방이후 60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위안부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모두 그것에 대해선 한번도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위안부는 나라 잃은 민족의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없이 짓밟힌 여인들의 아픔이자, 딸 혹은 누이를 지켜내지 못했던 못한 아버지와 오라버니로서의 고통이 담긴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교수의 "자발적 위안부" 발언의 파문은 위안부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고통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학자로서 연구의 입장'이라는 점잖은 진단을 내리기에겐 잘못이 너무 크다.

단지 '민족의 처부'를 까발려서가 아니다. 그의 잘못은 경제학자로서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미군 기지촌이나 대도시의 '매매춘'의 문화와 동일선상에서 검토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저질렀다.

이 세가지는 서로 다른 발생 계통을 가지

고 있고 서로 다른 고착화 과정을 가지고 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당해야 했던 36년 간의 고통은 그 안에 없다.

'민족의 아픔' 혹은 '민족의 처부'를 건드린 이 교수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민족적 분노'일 것이다. 학자로서의 입장도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생방송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교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노영현(불교대 인철2)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기사별류 살리지 못한 편집 아쉬워

지나오 동대신문은 대학 국어교육 실태 점검, 학생 식당 취재파일 등 의미 있는 기획이 시도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문화면의 충무로에 대한 기사 또한 학생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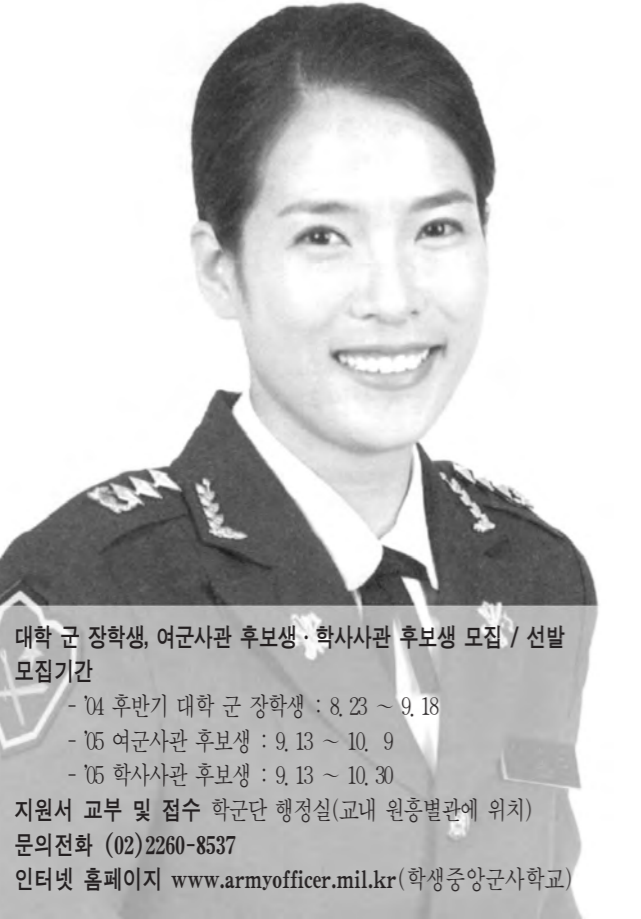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인 심층적 보도와 기사 밸류에 따른 레이아웃 구성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체적으로 편집이 너무 산만한 감이 있었다.

보도면에 기사화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제재관련 기사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사안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면을 살펴보면 신인연구처장 인터뷰가 오히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방송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교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도 동대신문이 학내여론을 주도해가기 위해서는 학생 기자들의 소신 있는 취재와 기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건욱(불교대 인철3)

대한민국 정예 육군장교로!



대학 군 장학생, 여군사관 후보생,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 선발 모집기간
- '04 하반기 대학 군 장학생 : 8.23 ~ 9.18
- '05 여군사관 후보생 : 9.13 ~ 10.9
- '05 학사사관 후보생 : 9.13 ~ 10.30
지원서 교부 및 접수 학군단 행정실(교내 원홍별관에 위치)
문의전화 (02) 2260-8537
인터넷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 (학생중앙군사학교)
제112(동국대) 학생군사교육단

2004년 하반기 대학 군장학생 모집

Table with 2 columns: 선발인원 (1학년 : 000명), 지원자격 (입관예정 연월일 기준 만 20세이상 27세이하인 자, 4년제 대학 중 1학년 재학생, 학기별 성적이 평점 2.0이상, 신형학점 80%이상 취득자,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지원서 교부/접수 (기간 : 8.23(월) ~ 9.18(토), 장소 : 학군단 행정실, 구비서류: 지원서(사진첨부) / 서약서 1부, 신원진술서(A양식) 3부,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수능성적 증명서 1부(입학당시 적용한 수능), 대학 확인용 성적 증명서 1부, 호적등본 3부, 주민등록등본 4부, 칼라사진(4.5cm 탈모상반신) 4매, 복무연장 지원서, 재정보증인 관계서류 각 1부 (직계존속 재정보증인은 불가),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산점 증명서류 각 1부), 선발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64~195cm, 체중 : 46~120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난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D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미만),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 '04. 10. 23, 최종 합격자 : '04. 12. 18),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2005년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Table with 2 columns: 선발인원 (000명), 지원자격 (입관예정 연월일 기준 만 20세이상 27세이하인 자, 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예비역은 30세 이하, 4년제 대학 졸업자('0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지원서 교부/접수 (기간 : 9.13(월) ~ 10.30(토), 장소 : 학군단 행정실, 구비서류: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신원진술서(A양식) 3부, 수능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포함), 천연색 사진(4.5cm 탈모상반신) 3매, 병역 중 또는 병적증명서(타군출신은 해당 군 참모총장 추천서), 국가유공 / 장기군속 군인자녀, 특기 / 국위선양자 확인서), 선발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64~195cm, 체중 : 46~120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난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D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미만), 합격자 발표 (1차 합격자 : '04. 12. 24, 최종 합격자 : '05. 3. 5),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2005년 여군사관 후보생 모집

Table with 2 columns: 선발인원 (000명), 지원자격 (입관일 기준('03. 7. 1) 만 20세이상 27세 이하인 미혼 여성 ('77. 8. 1 ~ '85. 7. 3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5.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지원서 교부/접수 (기간 : 9.13(월) ~ 10.9(토), 장소 : 학군단 행정실, 구비서류: 지원서(사진첨부) 1부, 입학당시 수능성적 증명서 1부,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호적 /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신원진술서 3부), 선발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신체검사 : 일반 신체등위 (신장 : 155~183cm, 체중 : 45~87kg), ※ 체중은 신장에 준한 체질량 지수에 따름, ※ 시력 : 근시 : -8.75D이하, 원시 : +3.75D이하, 난시 : 수평수직 굴절률 차이 4.0D미만, 부동시 : 양안의 곡광도 차이가 4.0D이하), 합격자 발표 (인터넷 게재 및 개별통지 예정), 문의처 (학군단 (02) 2260-8537)

달하나 천강에



김영민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 있다. 눈을 뜨면, 보면서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하루에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무척 오래이지만, 수시로 눈을 깜박이며 땅속에 새겨진 이미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이미지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눈앞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이다. 아니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는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던 잔여의 이미지가 감은 눈의 껍질에 투사되어 보일 때, 그 이미지를 우리는 감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자동차 백미러에 쓰여 있는 조그만 글처럼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보다 가까이 보일 수도 있다."는 자동차의 글귀는 착시를 염려해서 경고하는 문구이지만, 실제 우리가 눈을 감으면 멀리 있던 것도 가까이 느껴지면서 현실감이 더해진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대상은 다른 것들 틈에서 배경 가운데 보이지만, 눈을 감았을 때는 그것만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대상은 또한 이미 지나간 되새겨지는 어떤 것일 때도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무수한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때로는 두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도 눈을 감으면 볼 때가 있다. 그리스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썼다고 하는 눈먼 호머가 있다. 신력을 받은 예언자들이 그러하듯이 호머는 눈을 감은 채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재보다 더 가까이 보면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굴레와 운명을 이야기 한다.

최근 선풍적인 영웅주의를 다이나믹하게 묘사하여 인기절정에 달했던 '트로이'

라는 영화가 있었다. '일리아드'라는 호머의 서사시를 각색한 이 영화는, 독자로서의 우리가 '일리아드'를 읽으면서 패리스와 헬렌 두 연인의 사랑으로 인한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을 눈을 뜨고 보면서 생생하게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해준다. 패리스, 헬렌, 아킬레스, 헥토르, 아가멤논 등의 등장인물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겪는 우리의 아픔을 이미 먼저 체험하여 마치 그들의 삶이 현재의 우리의 삶에 투사되어 그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현재인양, 우리의 현재를 그들의 과거로 유혹하고 있다. 패리스를 만난 헬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만남과 사랑은 곧 트로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아킬레스와 헥토르같은 불멸의 명장을 만들어 내지만, 그들의 장렬한 죽음을 통해 동시에 전쟁을 통한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을 고뇌하게 한다.

아킬레스를 전장으로 이끌어 낸 지략의 귀재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이'의 주인공이다. '일리아드'가 헬렌을 되찾고자 하는 그리스인들의 투쟁사라면, '오디세이'는 트로이의 몰락이후 10년간 고향으로 돌아

가는 오디세우스의 귀향과정에서 겪는 고행과 방랑의 인생여정을 그린 서사시이다. 전자가 투쟁과 전쟁의 공간 속에서 갈등하는 비극적 서사시라면 후자는 항해의 시간 속에서 방황하는 희극적 서사시이다.

이 두 작품을 눈먼 호머가 그의 감은 눈에서 투쟁의 일리아드와 항해의 오디세이의 시공간을 실재보다 더 가까이 보고 있는 것이다. 잠시 눈먼 호머가 되어, 우리 자신의 사랑과 전쟁의 일리아드의 이야기를 우리의 눈 감은 상상의 스크린에 그려보고 고뇌해 보자. 평화로운 때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방황하는 영혼의 오디세이아의 여정을 체험해보자. 4년간의 대학생활은 이제 눈을 뜨고만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성이 일어나는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다이너미즘(dynamism)의 소용돌이가 되리라 생각된다. 무한한 잠재력의 시간과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눈 감은 호머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는 헬렌이 두려워 하는 미래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체험한 과거를 통해 현재를 구성하고 '앞선 미래'를 눈 감으며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메아리

돈벌이 대학

▲얼마전 인터넷검색사이트 '구글'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미국 스탠퍼드대가 돈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구글 주식 165만주(약 2075억원)를 보유했을 뿐 아니라 간접투자자 특혜권사용료 등으로 수억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는 스탠퍼드대의 사례만은 아니다. 지난 1980년 미 연방법의 개정으로 대학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대다수 대학들은 투자수익과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부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일본의 대학들은 돈벌이에 한창이라고 한다.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레스토랑 운영, 부동산 임대까지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들이 마련한 자구책이다. 사학법인의 60%이상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얼마전에는 한 사학법인이 파산할 만큼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돼 생존경쟁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대학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학정원축소와 대학정보공시

제가 골자다. 특히 정원미달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은 과감히(?)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예전부터 예고됐다. 지난 95년 대학자율화조치 후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정원이 늘어났지만 해마다 입학생의 수가 줄어 일부대학의 정원미달 사태가 심각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고지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현재 난립한 대학들의 가지치기는 절실했던 것이다.

▲대학간의 경쟁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재정확충이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라는 사실은 대학의 시장화·상업화를 부추기게 하고 있다. 결국 유명 사립대는 기어입학제 도입 등 자구책을 마련해 더 많은 재정을 확충하는 반면 대다수 대학들은 재정난에 허덕일 것이 분명하다. 대학이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돈벌기 위한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요즘, 미국과 일본 대학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부푼 희망과 악몽의 두얼굴로 다가오고 있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고사(古寺)

조지훈

목어(木魚)를 두드리다
줄음에 겨워

고고운 상좌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서역(西域) 만리(萬里)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시집 '청목집(靑鹿集)' (1946)에서

조지훈(1920-1988)은 시인이면서 한학자였고, 동양의 전통 사상에 깊은 조예를 가졌던 분이였다. 일찍부터 우리 전통 사상의 중요성에 눈을 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학문 세계를 열어놓았다. 이 시 역시 그런 동양적 너그러움과 한가로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좌가 수양에 전념하지 않고 잠을 었으니 수행자의 지체가 아니다. 그러나 행주좌와(行住坐臥),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 수양이 아닌 것이 없다. 줄려 잠들었다면 그게 꼭 게으름 탓만일까? 밤새워 수행하다가 깜빡 든 선잠이라면 장주몽(莊周夢)의 오도(悟道)가 그 속에 있을 법도 하다. 부처님의 빙그레 웃는 모습과 서역 멀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왔던 달마대사, 그리고 노을 아래 떨어지는 모란 잎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동자승의 정진(精進)과 해탈에 따뜻한 빛을 드리우는 것이다. 이 가을 날, 우리 동악(東岳)의 언덕에도 부처님의 미소 같은 햇살과 짙은 녹음(綠陰)이 발길마다 가득하다. 정진 끝에 깜빡 눈을 부친, 저 도사관의 학생들의 모습에서 '고고운 상좌아이'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임종욱

국어국문학과 강사

사설

총학생회 보궐선거 의미 있다

36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치러진다. 정·부총학생회장이 제직됨에 따라 2학기에 유례 없는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중선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치름으로써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선자의 임기가 석달이지만 11월 중순부터 37대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기는 두달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당위성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선거운동기간 역시 5일밖에 되지 않아 과반수 이상의 재학생이 투표한다고 예상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만일 이번 선거가 이런 우려대로 끝날 경우 학생회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멀어져 다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후보자가 출마해 당선된다해도 문제의 여지는 충분하다. 새로운 총학생회장이 선출되면 학생회사업의 추진력이 증대할 수 있겠지만 반 단위학생회와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학생회 장에게는 단위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하며 종합해내는 능력과 리더십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잔여임기가 짧아 오히려 의사소통부재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선위는 이번 보궐선거 실시를 재검토해야한다. 실질 임기가 2개월뿐이고 대다수 학생들도 무관심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선거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산투입대비 산출량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가늠해 봐야 하고 이와 함께 선거시행세칙 개정도 숙고해야 할 것이다. 과거 규정에 얽매기보다 융통성을 발휘해 합리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요식 행위는 과감히 버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에 더욱 투자하자.

동국만평

이호선 icezz@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곽주안, 고재석, 부주관 구본철,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최성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동대신문 홈페이지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영어 Pass제 9월 TOEIC 시험

* 졸업요건 영어 Pass제 TOEIC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학칙 제 54조 2 및 시행세칙)

- 1. 시험: TOEIC
2. 일시: 2004년 9월 19일(일요일) 15:00 ~ 17:30 (14:50 입실완료)
3. 장소: 중강당
4. 응시료: 무료
5. 대상: 01학번이며 2005년 2월 졸업 예정자
6. 신청기간: 9월 1일(수요일) ~ 9월 16일(목요일) (증명 사진 2장 제출)
7. 접수처: 언어 연구 교육원 사무실 (해화관 1층, 2260-3471)

* 금번 TOEIC 시험은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시험으로 대상자(미 Pass자)는 모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연구 교육원

제9기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 강사: 전제스님 (사찰음식연구가, 가정교육과 객원교수)
교육기간: 9월 15일 ~ 12월 1일(10회) 매주 수요일 10:00 ~ 13:00
대상: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진행방식: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교육장소: 학림관 조리실습실(사범대 1층)
수강료: 70,000원(재료비 포함)
접수: 9월 6일(월) ~ 10일(금), 여학생실
문의: 여학생실 (☎ 2260-3058, ender@dongguk.edu)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2004-2학기 단풍연 (단과대학 풍물때 연합) 연습일정 안내

- 기간: 2004. 9. 1 ~ 2005. 2. 28
일시: 매주 월, 수요일 20:00 ~ 20:30
장소: 대운동장

Table with 4 columns: NO, 일시, 장소, 비고. Lists practice dates and locations for the 2004-2005 autumn festival.

*이외의 경우에는 외부연습 및 공연일체를 불허하며, 일정보를 준수바람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실시

재학생의 기업업무 적성 및 인성 특성 파악에 도움을 주고, 인·적성검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리쿠르트 적성검사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검사 종류: 직무적성검사
2. 검사 일시 및 장소: 1차: 9월 20일(월) 오후 3시 학림관(J201), 2차: 9월 21일(화) 오후 3시 학림관(J201), 3차: 9월 21일(화) 오후 5시 30분 학림관(J201)
3. 검사 소요시간: 100분
4. 대상: 1, 2, 3, 4학년 전교생
5. 비용: 총 비용 7,000원, 학생 본인부담 2,000원, 나머지는 학생상담센터와 졸업준비과 지원
6. 접수 기간: 9월 6일(월) ~ 9월 17일(금)
7. 접수 방법: 학생상담센터나 졸업준비과 단체 또는 개인 접수
8. 검사결과 수령: 검사 해석날(10월 5일 3시) 수령 및 학생상담센터에서 10월 4일부터 수령
9. 검사결과 해석 일시 및 장소: 10월 5일 3시 학림관(J201)

*문의(구내전화): 학생상담센터(3931), 졸업준비위원회(3613)

학생상담센터 · 졸업준비위원회

취미와 취업을 위한 단기강좌

공강시간을 알뜰히 보내자!

1. 기간 및 강좌: 9월 20일 ~ 10월 28일 (주1회 2시간씩 총 4회)

Table with 5 columns: 강좌, 강사, 내용, 시간, 비고. Lists short-term courses like Night Dance, Image Making, and Kim Eun-jin's class.

- 2. 접수: 9월 13일 ~ 17일, 여학생실(계산관 1층, ☎ 2260-3058)
3. 대상: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마감
4. 수강료: 10,000원(100% 출석시 환불)



* 취지: 학내에서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점서원양과 교양습득에 도움이 되는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여 학생 실

대중매체의 터줏대감 라디오를 지켜라

교직원과 학생의 라디오 대담

“내 사연 흘러나오는 매력” “10대 위주의 오락방송 줄여야”

요즘 우리 주변에는 디지털 매체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이 범람하는 반면 아날로그가 지난 날에 대한 향수와 인간적인 매체로 사랑 받고 있기도 하다. 아날로그 매체인 라디오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다면 라디오가 디지털 매체 속에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80년대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낸 윤주영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과장과 요즘 라디오를 즐겨 듣는 장수정(정외2) 양과 함께 청취자들이 생각하는 라디오 문화의 변화, 라디오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 등을 얘기해 보았다.

윤주영(이하 윤) = 예전에 라디오는 TV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였어요. 그리고 다른 매체보다 청취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죠. 엽서에 사연을 써서 보내면 라디오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참 좋았어요. 친구들 생일이면 생일축하 사연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생일사연만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녹음해서 친구에게 들려주기도 했죠.

장수정(이하 장) = 예전에는 그렇게 엽서로 사연을 보냈지만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려요.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린 사연이 방송에 나왔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중학생 때 처음 라디오를 접했을 때는 연예인이 많이 등장해서 좋았지만 요즘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인터넷이 활성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라디오를 찾아요.

윤 과장과 수정양은 라디오를 공통의 관심사로 스스럼없이 친해졌다. 이렇게 두 사람은 라디오에 대한 자신의 추억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범위를 점차 넓혀갔다.

윤 = 라디오 프로그램은 같은 진행자가 10년 이상 진행하는 장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라디오가 여전히 고정 팬, 마니아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장 = 맞아요. 라디오는 매니아들이 많아요. 특히 진행자의 흥미와 관심사가 자신과 같으면 더욱 애청자가 되요.

윤 = 라디오는 진행자의 능력이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라디오 진행을 주로 전문성이나 아나운서가 했거든요.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흥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연예인이 주로 진행을 맡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표준어에서 벗어난 언어를 자주 구사해 듣기 거부하기도 하고요.

장 =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10대를 겨냥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벗어난 지금은 그런 방송들을 듣게 되지 않거든요. 중고생들에게 관심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연예인 일색 또는 오락적인 내용이 더 많아요.

이렇게 오락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어 아쉽지만 청취자들을 방송의 주제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에요. 요즘은 생방송 중에도 문자메시지로 사연을 보내는가 하면 그때그때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인터넷 동시채팅도 하고요. 라디오는 디지털 매체와 결합해 요즘 시대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 하고 있는 윤주영 과장과 장수정 양.

추구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라니까요.(웃음)

윤 = 라디오를 많이 듣는 특정 청취자만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들을 주는 것도 긍정적이에요. 택시, 버스나 트럭운전자 등은 하루 종일 운전하기 때문에 졸리고 피곤한데 라디오가 이런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무리 최첨단 디지털 매체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디지털매체들 사이에서 라디오가 살아남으려면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장점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 내내 나이 차이가 무색할만큼 두 사람은 라디오의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보여 주었다.

라디오는 시대흐름에 따라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마니아들은 라디오가 다른 매체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면서도 고유한 아날로그의 매력을 유지해야 지금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라디오의 새얼굴을 찾아라!

라디오는 이제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면서 라디오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방식의 프로그램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라디오들도 등장하고 있다.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듣는다 '모디오'

라디오와 휴대폰이 결합했다. 모바일(mobile)과 라디오(radio)의 합성어인 '모디오'는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크며 휴대폰 하단의 데이터 단자에 연결시키면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이는 라디오가 어느 한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청취자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약 10g의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며 성능도 좋다.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주요 주파수 9개를 저장해 총 81개의 주파수가 내장돼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주파수를 입력,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 라디오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은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모디오는 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이라 수요가 늘고 있다.

대안매체를 꿈꾼다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는 소출력 라디오로도

블리머 대형방송국 라디오와 달리 낮은 출력으로 반경 10~20km 지역 내에 서만 청취가 가능한 FM방송이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돼 있는 요즘에도 노년층이나 빈민층, 이주노동자 등 여전히 소외돼 있는 이웃들이 많다. 이들은 실제로 인터넷보다 라디오를 더 쉽게 접하는 계층이기도 하다.

공동체 라디오는 바로 이러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는 라디오 방송이다.

일본의 경우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잘 발달돼 있어 과거 고베지진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유일하게 재난방송의 역할을 한 이 방송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필요성을 느끼고 각 분야에서 조금씩 활동을 펼치는 추세다. 지난 9월 말에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으며 공동체 라디오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활동하는 중이다.

지금 같은 대사회에서 개인은 점차 소외되고 주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또한 기존 FM라디오 주파수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공동체 라디오의 도입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떠오르는 문화계 직업을 찾아서

사람의 매력을

그려내는 마술사

스킨아티스트

요즘 거리에서는 짧은 옷 아래 다양한 문양을 살갗에 그려 넣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피부에 문양을 넣음으로써 개성을 살리고 과감하게 자기표현을 하는 이들은 바로 스킨아트 매니아다.

스킨아트(skin art)는 바늘로 피부에 그림을 새겨

연구적으로 지속되게 만드는 기존의 문신이나, 스티커처럼 하루정도 지나면 지울 수 있는 일회용 문신과는 다르다. 인도·파키스탄 등지에서 재배되는 천연식물 '헤나'를 이용해 만든 원료로 피부에 약 2주정도 지속 가능한 문양을 그리는 것이 스킨아트다. 이는 천연물감으로 다른 색소를 넣지 않는 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

스킨아티스트는 이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다. 현재 이들의 대부분은 백화점 행사장이나 미용실, 뷰티 샵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미용학원 등에서 강의를 한다.

스킨아트는 요즘 같은 두 잡(two job) 시대에 더욱 유망한 분야이기도 하다. 주로 여름에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분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 때에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약 2년 째 스킨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경(27)씨는 "원래 네일 아티스트인데 지금은 스킨아트 강의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며 "스킨아트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는 문양을 그려내기 때문에 항상 새롭다"고 말한다. 또한 이씨는 "같은 문양이라도 그 사람과 짧은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에 맞게 약간씩 변형하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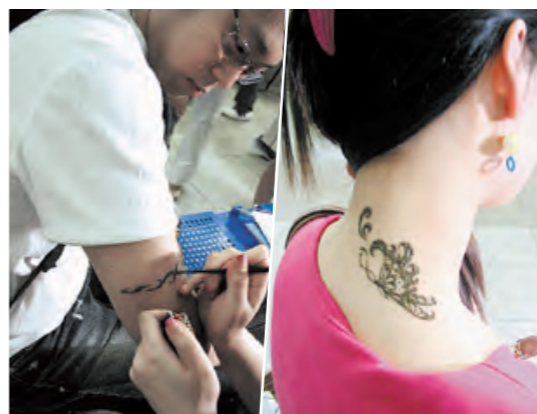
스킨아트는 흥미를 갖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기술이다. 스킨아트 아카데미 대표 송정용씨는 "일반인도 매일 한 시간씩 1~2개월 배우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스킨아트를 강의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 중 스킨아트 아카데미의 경우 수강생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동영상 강의와 강의에 필요한 재료 등을 제공한다.

한국스킨아트협회에서는 내년 3월 스킨아티스트 민간자격증 시험을 처음 실시할 계획이다. 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스킨아티스트가 인지도를 높이고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실력을 겨루는 대회인 스킨아트컨벤션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월드컵 때 성행한 바디페인팅

의 영향으로 몸에 문양을 그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자신의 손으로 다른 사람의 숨겨진 이미지를 이끌어 내는 마술 같은 스킨아티스트에 한번 도전해보자.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행사장에서 스킨아트를 하는 모습(좌)과 완성된 문양(우).

문화단신

연극 '바나아저씨'

극단 '지구연극연구소'에서는 러시아 사실주의 작가 안톤체호프의 '바나아저씨'를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2004년 안톤체호프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안톤체호프 동경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일본 연극계는 한국 대표로 극단 '지구연극연구소'의 '바나아저씨'를 공식 초청했다. 일본공연은 오는 22, 23일에 동경 아츠스피어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극 '바나아저씨'는 재산 분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 연민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가슴 아픈 코미디 극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1회당 80명으로 관객을 제한하며 배우와의 대화시간, 사진 촬영 등도 있다.